

#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미: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

## 서 문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Why I love the apostle Paul

존 파이퍼(1946년 1월 11일-). 침례교 목사, 위튼 칼리지, 플러 신학교, 독일 뮌헨 대학에서 신학 박사, 1980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아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 33년 목회, 2013년 3월 31일 고별 설교, Desiring God Ministry, 현시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크리스천 중 한 사람, 큰 영향력, 설교를 들으면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 전립선 암 투병,

우리는 3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를 마쳤다. 엘버트 반즈, 위어스비 사도 바울의 생애 강해하는 시점에 이 책이 나왔다. 가장 영향력 있는 현시대 목사의 글, 30편, 사도 바울의 여러 면 소개

바울은 거짓말쟁이, 광신자(정신병 환자), 혹은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바울과 함께 근 60년을 살았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두려워하고 기의 말을 암기하고 강해하고 시를 쓰고 그의 고통을 보고 울었고, 로마서를 8년 동안 강해하며 그를 닮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10편을 산다 해도 그의 고통에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 2000년 전에 산 사람의 생애를 알 수 있을까?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편의 서신(혹은 14편)과 그에 대한 기록인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이다. 이것들을 통해 바울을 알 수 있을까?

파이퍼의 말: Yes!

그를 알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그를 사랑하고 믿든지 사기꾼으로 여기고 미워하든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든지

어쨌든지 그는 실제 인물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 가지 반응,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

요8:58; 10:30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류를 속인 거짓말쟁이, 혹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 자, 혹은 그의 주장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다.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 전설이다. 즉 그분에 관한 모든 기록은 실제 그분이 한 것이 아니다. 다 전설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 사실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떤 역사학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바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 학자들도 그의 서신서는 사실임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논증(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은 바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주님이 아니므로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권위 있는 대변인으로 말할 수 있다(갈1:1, 11-16,

고전14:37-38, 15:1-9; 20-25 등)

사실이 아니라면 미친 사람의 말

그래서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 혹은 주님의 권위 있는 대변인 나는 주님을 60년간 믿어 왔다. 가끔씩 묻는다. “왜 나는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는가?”

“그리고 왜 나는 그 진리에 나의 전 생애를 세우고 있는가?” 즉 신약 교회를 한다.

이유: 진정으로 나는 그를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한 자라 할 수 없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그를 신뢰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룻밤 사이에, No!

그를 아는 데서 나온다.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연구하면서 혼동이 생기기도 하고 모순에 걸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공부하면서 더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는 세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2000년을 거치며 살아왔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님을 알아내는 기준, 사랑을 판별하는 기준과 같다.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건전하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 대한 사랑을 글로 기록하게 되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게 된 여정은 하나의 여정이었다.

### 두 종류의 사랑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 내 사랑은 감사의 사랑, 흠모의 사랑

나는 그가 인생을 바치면 가르쳐 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사랑한다.

동시에 나는 인간으로서 그가 가진 성품, 장점을 흠모한다.

그의 말들을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지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의 신비를 가장 깊게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인간들 가운데는 바울이 내게 가장 큰 인물이다. 감사의 흠모의 인물

이 글을 통해 바울이 감사해야 할 인물 흠모해야 할 인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제시하려는 것은 완전한 그의 일대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그에 대해 느낀 바를 쓴 것이다. 즉 내가 그에 대해 느끼는 애정이다.

여러분도 바울에 대해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기술할 수 있다. 아마 나와는 다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의 위대함을 보여 줄 뿐이다.

나는 그의 성품의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는 그가 믿을 만한 증인임을 보여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이유들을 모으면 그는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확신하기 바란다.

바울은 하나님이다. 그는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봉이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바울은 나의 인성을 공유하되 특히 죄 많은 인성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을 성취하였다. 그것도 고통을 통해서

나는 그가 알려주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사랑한다.

그가 열어서 보여 주는 그리스도의 위대함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위대한 인품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의 성품은 다양함을 보여 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왜 그를 사랑하고 흠모하는지 보여 주려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나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총 30편의 글

1. 그의 변화(1-5)
2. 내 삶을 변화시킨 사람에 대한 사랑(6-10)
3. 논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11-14)
4. 신비들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15-19)
5. 귀중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사랑(20-24)
6.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 사람(25-29)
7. 바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30)

25-30분 정도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권: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행26:5), 당시 가장 뛰어난 바리새파 학자 가말리엘(행5:34)의 문하생(22:3) 그의 증언(갈1:14)

유대교의 바리새파, 확고한 확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빌3:5-6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음(행7:58)

다마스쿠스 도상의 변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한 것을 세 번이나 기술한다.

행9:1-2

바울의 생각: 그리스도교가 옳으면 자기의 믿음은 붕괴된다. 지금의 진화론자, 불신자들도 비슷하다.

그는 삶의 의미를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의의 획득에 두었다. 행위, 선한 행위(빌3:6)

그의 동년배들,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함(3:7),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앞서나갔다(갈1:14).

그런데 기독교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재림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기동째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박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을 알게 되었다(갈1:15).

누가는 사도행전 9, 22, 26장에 이 변화의 사건을 기록한다.

행9:3-9를 보자.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행9:15-16)

그의 회심 소식이 널리 퍼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급진적인 회심을 눈으로 목격함

그의 말(갈1:13, 23-24)

회심 전과 후의 그의 삶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살인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 널리 알려짐

그는 분명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함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바울의 다마스쿠스 회심의 핵심: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였다.

예수님의 용서가 진짜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은 곧 주인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았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고전15:3-9)

딤후1:16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 여기에서 나온다. 그의 회심, 이것이 사기이면 나는 끝이다. 내 믿음도 끝이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들에서 내가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한다.

30개의 이야기는 다 여기에서 나온다.

회심하였는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나의 주인이신가? 사명이 있는가? 신약 교회를 아는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는가?

바울을 보면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33:  
바울은 합리적 설득을 넘어서는 영광의 계시를 보여 주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회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전격적인 회심, 이 회심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중요하다.

그는 갑자기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서신서에 쓰면서 자신의 독자들이 자기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세상의 추세: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늘어놓는다.

그런데 바울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유: 그는 자기의 이 역사적인 경험의 증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신보다 더 나은 확신을 독자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딱 두 번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인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기록한다.

1. 고전9:1; 2. 15:6-8

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변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갈1:11-12(행22:17-21)

여기에 드러난 그의 논점의 핵심을 보자. 그는 자기의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뒤에 그는 13절을 말하면서 자기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증한다.

즉 그는 내 안에서 발생한 변화를 너희가 보고 있다. 사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던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는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역사가들이 아닌 우리는 어떠한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의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복음은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한 사람의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 깊은 역사가들은 증거들과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바울의 설명이 진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럴듯한 가능성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걸어야만 한단 말인가?

만일 원시인 같은 사람들, 야만인들이 선교사를 통해 사도 바울의 복음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위해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눅21:16-17). 혹시 순교해야 할 때 순교가 어리석음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바울의 초자연적인 진리 변호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 자체의 내적 영광을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의 기초로 사용한다. 바로 이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는 다음의 심오한 말들을 보라.

고후4:4-6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 준다.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빛에 대하여 말한다.

빛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

첫 번째 진술(4절):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다.

두 번째 진술(6절):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해나 등잔불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영적인 빛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의 머리에 있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지각의 눈, 엡1:18).

그럼에도 이 빛은 물리적 빛 이상으로 실제적인 빛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빛이다.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 안다는 것의 소중함

이 영광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영광이다.

요1:14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마13:13).

요한과 베드로는 보았다(마16:17).

이것을 보는 것이 진짜를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야말로 진짜 증거이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기초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영광 즉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 감사를 드린다.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인 예수님이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모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전15:14).

그러나 역사적 증언 혹은 증거 자체만으로는 우리 혼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려면 영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천국 지옥 간증: 고후12:1-16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벧후1: )

###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4: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였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소명에 전적으로 충실하였다.

이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교회에도 회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회심의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곧장 불길이 꺼진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물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개는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나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회심한 바울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꾸준히 일을 하였다.  
그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삶,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대의를 위해 필요한 것: 단일한 마음,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나는 단일한 마음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한 인간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하나로 정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대단하다.

물론 인생의 그 목표가 가치 있을 때만 이려하다.

바울은 자기 삶의 열정을 몇 군데서 표현한다.

행20:24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  
바울의 경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한 길을 달리는 것이었다.

그 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울은 달리기 이야기를 몇 차례 한다. 달려갈 길, course

딤후4:7-8

결국 그는 달리기 길의 결승점에 도달하였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바울은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나이가 든 채 로마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삶을 마치려 하지 않고 스페인에까지 가려 하였다(롬15:20, 24).

물론 그는 거기에 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 소명을 이루려 하였다.

### 그의 열정의 열정

바울의 일편단심,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목은 빌1:20-21이다.

바울의 일편단심 목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하튼 이런 열정 속에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한 가지 소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존귀하게  
하는 것, 망원경으로 확대하는 것

빌1:20-21

바로 이것은 그의 인생의 열정, 목표를 하나로 묶어 주는 원리

인생의 모든 꿈, 계획, 전략, 운동, 메시지, 이 모든 것을 묶어 주는 열정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망원경으로 확대하는 것

빌3:12-14

이것을 고통을 통해서 이루었다,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일편단심 목표, 열정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당하였다.

거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달려갈 길을 고수하였다.

일편단심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끈질긴 고통이라고 부르고 싶다.

바울의 회심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행9:16).

사실 바울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묘사할 때 이것은 단순히 끈질긴 것만은 아니었다. 고통과 고난은 사방에서 닥쳤다.

고후11:23-28

우리가 그의 고통을 상상해 가면서 이 글을 읽으면 울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여러 친구가 있었겠지만 그가 느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밤에 다른 사람들은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 상처를 치료할 때 혼자서 자기의 상처를 매만지는 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상적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말할 때 안다

물론 개중에는 그의 고통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가 이런 것을 나열한 것은 다 허풍이야!”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이것은 혹시 자랑거리를 내쫓는 미친 사람의 독백은 아닌가?”

나의 대답

바울의 사역을 꺾어내리려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후서를 수신한 고린도에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신용장을 내밀었다. 이에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자기를 변명하였다.

고후11:23

이 말의 의미: 어리석은 자들만 자랑한다. 즉 그는 바보처럼 말하였다.

고후12:11

사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한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 나는 그의 14개 서신서들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동정을 통해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자기 중심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정신 나간 사람과 온전한 사람의 차이: 온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 이유도 알고 있다. 그러면 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위험을 무릅쓸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고후11:11).

그는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가 당한 이런 모든 고통의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이 미친 사람 바울에 의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이 단 하나의 열정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고후6:3-10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헌신함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5: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동족들을 끝까지 사랑함

지난 주, 자기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끝까지 소명에 충실함, 고통과 함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다.

지난주 바울의 고통 고후11:23-33, 내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추가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 것은 24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뿐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이 구절에서는 나는 세 가지 두려움을 느낀다.

다섯 번 매를 맞는 것의 고통과 두려움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는 40-1, 39대, 39대를 등에 때린다(채찍질). 그것도 5차례, 아마도 같은 등에, 그것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그는 유대인을 자기 형제들, 친족들(롬9:3) 나와 함께 그가 그렇게 매질 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자. 매를 세 보자. 때리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려 해도 결국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때리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매질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한 것이다. 특별히 회당과 관련된 죄에 대해

주님의 말씀 마10:17, 23:34

구약성경은 이런 매질에 대해 규정함(신25:1-3)

39대 이상 때리면 안 되는 다른 이유

이것은 사형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매질을 당하면 죽는 사례가 발생함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한 매질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관대하게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매질은 치명적이었고 39대까지 이루어졌다.

40대가 아니라 39대인 이유, 혹시 잘못 세서 이를 넘기면 회당이 고소를 당함 이렇게 5번 매질 당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 39대씩 5차례, 피부가 까지고 덮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평생 걸을 때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매질의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 묻고 싶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 상처를 치유할 피부 이식 수술도 없었다. 그냥 치유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한 번 맞는 것도 힘든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등에 또 맞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치유가 더디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채찍질 내가 상상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육체의 고통을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감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할 수도 있었다(행13:11, 마법사 엘루마).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를 때리는 종족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바울이 이처럼 5번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는 매질을 한 유대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일이다. 로마 제국의 여러 회당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데도 왜 그는 계속 회당에 갔을까? 적어도 2가지 이유

1. 그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롬1:16을 보라. 그래서 그는 먼저 회당 방문, 그리고 이방인

2. 좀 더 개인적인 이유, 그는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였다.

자기 동족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동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였다(롬9:2-3; 10:1).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때를 맞으면서도 그가 여전히 그들의 회당에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의 사랑에 경이감을 느낀다. 어떻게 하든지 그는 그들을 구원하려 하였다(고전9:22).

바울로 인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바울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의 말씀(눅6:27-28). 실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다. 바울도(고전4:11-13).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생각하였다.

고후4:8-10

갈6:17

이런 이유로 나는 경이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사랑한다.

동족에 대한 사랑: 로마서, 1-8장 칭의와 성화, 9-11장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12-16장 성화와 교회 내 여러 문제

9-11장 즉 3장을 자기 민족에 대해 할애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갈6:15-16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민족, 이미 믿은 사람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국가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6: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한다**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에게 큰일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은 결코 그를 불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 많은 목적에 대한 만족을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경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보니 불평하지 않는 것은 현 세상에서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더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성품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품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도 많은 경우 안 하신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가? 바울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감**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죽기 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많다.

고후1:8-10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놀라운 것이 드러난다.

1. 고통의 정도: 죽음의 선고

2. 이 고통의 목적: 하나님 신뢰

3.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 아니다. 마귀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원치 않음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은 진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점점 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한다.

그런데 매일 같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시점에는 더욱 더

**불평하지 않는 데 필요한 핵심**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한 상황이 닥칠 때에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핵심

바울의 확신: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2.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바울의 선을 위한 것이다.

3. 공통적으로 당하는 고통(고전10:13)

롬5:1-5

1-2절 설명

그리고 3절부터

불평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이유: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 결과 그에게는 끈기와 소망이 생겼다. 나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만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후4장 설명

6절: 예수 그리스도

7절: 연약한 우리

8-12: 바울의 고통

13-14: 우리의 소망

고후4:16-18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삶이 고통과 병 그리고 노화로 인해 점차 소진되는 것(16)

이런 고통 뒤의 다음 장은 이 땅에서 더 큰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음 장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때에 어려움이 온다, 고통이 온다. 사망의 공포가 온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위해 더 큰 영광을 예비한다.

어려울 때나 편안한 때 만족하는 것

비록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오류 혹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냄(갈1:8-9; 2:11; 5:12 등).

그는 자기의 여러 가지 부담을 표현함(고후11:28). 여러 고통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그의 만족을 얻었으며 그 만족은 특별한 것이다.

그는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빌4:11-13,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빌3:8).

또한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롬8:28; 빌1:12).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사는 바울을 볼 때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7:  
자기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체험한

지난 시간까지 6번에 걸쳐 서문과 1부(바울의 변화)

오늘부터는 2부 '인간 파이퍼에게 영향을 준 사도 바울 탐구'

파이퍼는 젊은 날에 풀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를 거기서 건져 내었다.

50년 동안 기독교 희락주의를 개척하고 개발하게 되었음. 'Christian hedonism'

대학에 다니면서 믿음의 문제, 갈등

부모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전10:31).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려고 노력함  
그런데 동시에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였다(기쁨 속에서 살고 싶었다). 이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픈 현상처럼.

300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보스톤 목사의 말

사람이 무언인가를 생각하라. 사람은 (1)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추구할 수밖에 없다. 행복 추구는  
사람의 본성에 스며들어 있다. 박멸할 수 없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2) 사람은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원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므로 행복하기  
위해 자기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구하게 된다.

나의 문제: 이 두 가지 동기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행복하려는(기뻐하려는)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표가 타협되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막8:34).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즉 비참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을 마친 뒤 신학교에 가서 바울의 서신서 연구.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그전: 성경은 진리와 지혜의 금덩어리들을 모은 책, 매일 성경으로 가서 금덩어리 한두 개를 꺼낸 뒤  
그날 하루 종일 그것들을 가지고 다님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 성경의 기록자들은, 특히 바울은 금덩어리들을 모아 놓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함

바울을 보니 깨뜨릴 수 없는 논리로 구성된 쇠사슬로 단단하게 모든 것들을 연결해 놓음

많은 사람들은 논리라는 말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왜 이것이 내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 보여 주려 한다.

바로 이것을 통해 나는 내 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5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자. 1장을 보자.

빌1:20-21,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  
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여기의 전반부는 내 삶의 갈등의 절반을 다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열정(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나는 항상 그 일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 주려고 노력함

이전에 나는 이것이 내 기억이라는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금덩어리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금덩어리로 보지 말고 논리의 사슬에 있는 연결 고리로 볼  
것을 내게 주문하였다. 다시 이야기하겠다.

바울은 20절에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함

그리고 21절에는 그리하는 이유를 말함

21절의 맨 앞에는 '이는' for가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다.

성경에는 for, because, therefore, in order that 같은 말들이 있어서 논리를 이어나간다.

그런데 나는 이전에 이런 단어들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금덩어리들을 연결고리로 보고 하나의 사슬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보니 20절의 살든지 죽든지는 21절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와 연결됨.

그래서 21절 시작 부분의 for(왜냐하면)와 두 구절에 나오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21절에서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됨을 보이려 하였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내게 생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더는 아닐 것이다.

20절과 21절의 death와 die를 연결해 보자.

바울이 죽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려면 우리의 죽음을 이득으로 보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내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경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죽음이 만족을 주다니? 이것은 조금 쇼킹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도 사라지고, 섹스, 아이들, 꿈, 은퇴, 취미 등이 부활 때까지 사라진다.

즉 몸과 몸이 즐기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내게 이득이 된단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이 22-23절에 나와 있다.

바울은 죽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죽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였다.

바울은 이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모든 즐거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죽음을 이득이라고 하였다.

비록 죽음이 땅에서 이런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지만 죽음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체험하게 한다. 이것이 이득이다.

빌3:8에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젊은 시절의 갈등 풀기

빌1:20-23을 통해 논리의 사슬을 알게 됨.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가?

바울의 대답: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보다 그분이 더 내게 더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체험이 될 때 가능

내게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하나님께 영광, 나의 기쁨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푸는 요소

바로 이것을 통해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Christian hedonism)를 출생시켰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지난 50년을 살아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장 만족하게 될 때(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따라왔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논리에서 나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빌1:20-23 요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으면(기뻐하면) 그분은 나로 인해 존귀하게 되신다.

그것도 내가 고통과 죽음을 통해 만족을 얻으면

나는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른다.

내게는 이것이 갈등을 푸는 동력이 되었다.

이를 통해 나는,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나의 열정이 충돌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바울의 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존귀하게 되신다 (Yes!).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을 배제한 채 존귀하게 되신다(No!).

즉 그분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만족하는 것, 심지어 고통과 죽음에서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내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음 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야만 한다. 누리기도 된다. 누릴 수도 있다가 아니다.

그 이후로 나는 성경에 바로 이 진리를 보게 되었다.

시37:4, 32:11, 빌3:1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욕구가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귀한 일이 아니라 사실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은 금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은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은 생명 샘이며 기쁨의 강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아니다.

많은 경우 자기 부인은 금욕으로 봄: 이런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자기 부인은 우리의 죄의 욕망을 부인하고 영원히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막8:35)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무슨 이유로(시16:11)

젊은 날의 나의 갈등은 이것으로 해결되었다.

내 삶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은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406:

하나님을 기뻐하므로 사람들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면서 내 만족(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나의 염려는 해결되었다.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사이에 갈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 큰 충격 바울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을 얻으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에게 더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다.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발견: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 사이의 갈등

두 번째 발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려는(기뻐하려는) 욕망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욕망 사이의 갈등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면 혹은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말,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전13:4-5).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 고전10:24

롬15:1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면 혹은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것 역시 첫 번째 갈등처럼 내게는 답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였다.

예수님의 말씀: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22:37-38)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과 같다(마22:39).

행복해지려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울의 대답: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도 넘치도록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 확장된다.

하나님의 기쁨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

바울의 예

고후8:1-2,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넘치는 기쁨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들의 죄 용서됨, 지옥 정죄에서 벗어남

성령님의 내주, 소망이 가득함,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1)

그래서 이 기쁨이 사람들의 사랑으로 나타남(2절):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8)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보기보다 대단히 심오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다.”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보는 것이다.

요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후하게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흘러넘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넘치는 기쁨이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게 함(2)

너무나 큰 발견이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인지 확인하려 함  
나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

롬12:8

히10:34

고후9:7(Y)

벧전5:2(Y)

히13:17

내게는 이것이 매우 놀라웠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다. 삶의 여정을 바꾸는 발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산물

No!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Yes!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합시다. 그러면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기쁨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희생의 사랑이란 말에서 ‘희생의’라는 말은 역설적이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고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 시대에서는 사랑은 종종 고통을 요구한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요구한다.

바울의 말(골1:24; 고후7:4; 롬5:3)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

1. 예수님의 말씀(행20:35):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2. 우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눅21:16, 18). 주님의 말씀(요11:26): 사람을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
3. 우리의 보상이 하늘에서 크다(마5:12)
4.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왔다(히12:2).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생각한 것 고후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슬퍼하면서도 항상 기뻐한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늘 부른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한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막8:3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희생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된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면 대상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부담으로 느낄 것이다.

히13:17의 의미,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계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불평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돌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울의 말(고후2:3):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  
라.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  
사랑과 기쁨은 함께 나아간다.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희생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마: 인종적 편견을 버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다정히 지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정통파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적 인종적 종파주의자,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인종적 차별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였다.

나는 바울이 화의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항상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나는 1950-1960년대 미국 남부의 인종 차별주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 당시 나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물론 나는 내 죄에 대해 책임을 미루려 하지는 않는다. 당시 문화로 인해 내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당시의 인종적 편견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공범이라고 시인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인종과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 나의 구출자 바울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편견을 버릴 때가 왔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 문제에 눈이 멀어 있었다.

소경의 말(요9:32). 아무도 없다.

내게도 이런 일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늘 그러하듯이 그분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사람의 말을, 실제로 그분은 바울을 사용하셨다.

나는 흑인들에 대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

그래서 그는 나를 도울 수 있었다.

바울의 표현: 히브리인중의 히브리인(빌3:5)

그는 바리새인, 지독한 박해자 혈통(인종적 종교적), 유대인들 가운데 으뜸감(갈:14)

베드로의 표현과 비슷하였다(행10:28).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를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였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만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인종이나 문화 관습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종적, 종교적 교만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빌3:7-8).

### 십자가의 혁명적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종적 견해를 극복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엡2:13-20)

사실 이것은 가히 혁명적 묘사이다. 당시도 그렇게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것에서 그렇다.

이 말은 정치적, 사회 정의적, 인권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승리의 언어 거친 십자가를 사랑하려면 십자가의 열매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적개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고정되었다.

###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분 안에서 둘이 가까워졌다.

이것은 세상 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는가에 대한 것,

이것은 강제적인 것(맨데이트)이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러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처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것을 사랑해야 하고 좋아해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음과 같다(골3:9-11).

그리스도로 인해 인종적, 지역적, 문화적 편견은 사라져야 한다.

바울은 지독히도 인종적 종교적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혁명적으로 변하였다.

고전9:19-23

### 그리스도인은 새 인종이다

이 구절에는 조금 이상한 말이 있다.

바울은 유대인, 그런데 그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되었다. 무슨 의미?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다니? 그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유대인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물. 즉 새로운 종류의 인종이 되었다(고후5:17).

엡4:24; 2:15

지금의 현시대를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사실 이 말은 대단히 혁명적인 말이다.

현시대의 특징: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종적 편견 등으로 폭동이 일어난다.

미국도 마찬가지

###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 불가능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인종적 편견에 대해 더 혁명적인 말을 하였다.

나의 틀은 바울에 의해 산산이 깨졌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사랑한다.

바울이 없었다면 나의 상태가 어떠하였을까? 생각만 해도 떨린다.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게 있는 친구들을 소유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쓴 책들을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교회와 천국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흑인 딸을 두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적으로, 관계 면에서 빈곤한 사람을 살았을 것이다.

많은 경우 나는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였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영원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미래의 영광은 다음과 같다. 계5:9-10

은 세상의 모든 지파, 부족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온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긴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적개심, 긴장과 갈등, 불신, 무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완전한 사랑과 화평과 정의만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천국의 실체를 보여 주는 그림을 사랑한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위해 그런 그림을 이미 보여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존 파이버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0:  
내가 암을 앓을 때 바울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이 책의 이 부분을 쓰기 2시간 전에 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아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태가 위중하다. 아이가 죽는다면 내 친구는 아들들 가운데 두 명이 암으로 죽는다.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 암 환자 가운데 나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립선암을 앓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역설이 있다.

나는 결혼 37주년 되는 날에 조직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암은 밸런타인데이에 제거되었다.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암은 결코 웃을 문제가 아니다.

정기 검사

바울의 역할을 보여 주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전립선 비대 문제로 비뇨기과 의사에게 정기 검진을 받았다. 당시 나는 60세, 나는 건강하다고 확신하였다. 사실 우리 몸 안에 병이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우리를 보면 참 이상하다.

그 뒤로는 누가 “건강이 어떠세요?”라고 물으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좋다고 느낍니다.”: “나는 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언제라도 내가 암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나쁜 병을 가질 수 있다,

혈전 때문에 쓰러질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기 검사가 끝났다. 의사의 말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해요”

잠시 후에 나는 “좋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시간이 있다면 지금 합시다.” 기다리다가 “그러지요.” 다른 검사실로 데려갔다. 가운을 입어라. 잠시 후에 오겠다.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제때에 주어진 사도 바울의 위로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를 기억한다. 많은 시간을 공유했기에 이럴 때에 가장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친구, 바로 그때에 나는 나의 좋은 친구인 바울과 함께 긴 시간을 가졌다.

사실 나는 그날 아침 그의 말을 너무나 좋아하였기에 두 구절을 암기하기로 하였다.

그날 아침 나는 수술 가운을 입고 검사실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살전5:9-10

이것은 참으로 큰 선물이었다. 그것도 제때에 가장 정확하게 주어진.

바울은 그날 내게 그 말을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시간에 내가 그것을 읽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암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 검사실에서 그 말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릭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

사실 이것은 “네 병이 고쳐질 거야”보다 더 달콤한 말이었다.

하나님의 주권 밖의 일은 없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분의 대변인이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주님의 전령 나는 그분의 전령의 음성을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이것은 오래된 사도 바울의 음성이다. 그는 내게 가장 적합한 말을 해 주었다.

1. 그의 말 ‘네가 암이든 무어든 경험할 텐데 이것은 결코 진노가 아니다. 암이라 해도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엡1:11).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암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No!  
의미: 암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서 너의 세포 조직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포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바울의 말의 의미: 암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나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은 형벌의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긍휼과 사랑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이 답한다. 곧 보여 줄 것이다.

죽지 않는 것 이상의 것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두 번째 요점을 이야기하였다.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얻게 정하셨다.

이 암은 진노가 아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진노의 반대는 구원이다.

그의 말 “조직 검사가 음성이다. 그래서 너는 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의 구원일까?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점의 의문도 없다. 어쩌면 나는 암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을까? 여기의 구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

셋째 요점: 하나님은 이 암으로부터의 죽음에서 내가 벗어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말한다.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너는 구원 받을 것이다.”

바울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였다. 죽은 뒤에 의식이 없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빌 1:23). 죽은 성도의 몸이 정말로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에서 깨듯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몸이 깰 것이기 때문이다(고전15:20).

여러분은 이것이 큰 위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암에서 구출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더 확고한 위안의 말이었다.

나는 그때에 바로 그것을 얻었다. “이것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이다. 네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확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네 번째 포인트: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암이든 아니든, 죽든지 살든지 바울은 내게 다음을 말해 주었다. 나는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유를 알게 된다(고전15:3-4)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왜?

그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죽을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분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불의 정죄를 당하셨다(요3:36; 롬8:3).

요5:24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롬8:1).

주님이 이미 정죄를 받았으므로 정죄가 없다.

주님이 이미 진노를 받았으므로 진노가 없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암은 진노가 아니다”를 확신하게 됨

바울의 선물은 개인의 약속이다.

바울이 내게 말해 준 마지막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읽어보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어떤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산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셨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뜻한다,

1.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므로(롬6:9)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2.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분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의사는 다음날 전화를 해서 말하였다. “암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편한 시간에 오십시오.”

우리는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7주 뒤에 발렌타인데이에, 벌써 12년이 지났다. 내 건강은 어떨까? 나는 건강하다고 느낀다.

#### 바울의 논리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점

바울은 또 하나의 놀라움을 내게 선사하였다.

이 구절의 맨 앞에는 fo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나는 나중에 발견하였다.

살전5:9-10

이것은 그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흥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롬5:8). 구원의 소망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심 이것을 알고 난 뒤 그날 비뇨기와 전문의 검사실에서 발견한 진리가 더 명확해졌다. 생각해 보기 바란다.

헬멧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전투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누군가가 돌이든 무엇이든 머리에 던지거나 치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투구를 쓴다. 나는 이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주님께서서는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셨다.

우선 조직 검사의 타격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리고 암의 공포에서 구출해 주셨다.

주님은 이런 타격들이 진노가 아니라는 약속으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주셨다.

나는 투구를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내 머리에 가장 적당한 때에 투구를 씌워주셨다. 나는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진노가 아니다. 내가 살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죽어도 그분과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내 머리에 놓인 투구였다.

이 어려운 시절에 바울만이 내 머리의 투구를 씌워 준 인물은 아니다.

다윗의 시편, 예수님의 겹세마네, 십자가 등

그러나 전립선암의 투쟁은 기억에 남는다. 또 상당히 심하였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친구와 함께 걸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존 파이버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1:  
나를 얹어매는 죄들을 억제하는 비결을 늙어서 바울에게 배웠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바울은 나를 얹어매는 죄들과 내가 싸우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였고 내 죄들을 진단하고 가르쳐주었고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었다. 그는 내 목회 사역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과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오늘의 주제: 얹어매는 죄들(히12:1) besetting sins

64세였을 때 나는 목회 사역을 멈추고 8개월 동안 휴가를 얻었다. 이유: 뒤로 물러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한다.

목회 사역의 압력이 나를 눈멀게 하여 내 가족과의 관계, 결혼 생활, 개인의 거룩한 삶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 우리에게는 결혼 생활의 위기는 없었다. 목회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의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가족 관계와 결혼 생활 그리고 사역의 압력으로 인해 나는 설교, 직원들 지도, 글쓰기, 미디어 사역 등을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만들었다.

8개월 동안 나와 내 아내는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회중의 일부가 되었다. 내 목표 중 하나는 내가 목사나 인도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되어 공예배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목사나 인도자가 되지 않고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를 얹어매는 죄에 집중하다

또한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죄 즉 나를 얹어매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사도 바울만큼 내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은 없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내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죄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많은 긍휼을 베풀어주셨다.

늘 그러하듯이, 바울만 내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바울은 나의 참 모습을 가장 깊게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통해 나를 얹어매는 죄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그때의 일을 요약해서 말하려 한다.

죄들의 목록

내 타고난 성격, 성품으로 인한 죄를 정확히 살펴보려고 하니 그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쉽게 남 탓하는 것,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혹은 축 쳐지는 것) 물론 내가 성적인 죄 즉 안목의 정욕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감추려는가 보다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

성적 정욕으로 인한 죄를 극복하는 것은 이 모든 죄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

내 아내는 성적인 유혹이 이런 죄들보다 우리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망쳐놓을 정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다.

물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전10:12).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서치라이트를 사용해서 나는 다음의 5가지 죄를 발견하였고 그것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이기심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기심이란 무엇인가?

이기심은 한 마디로 교만과 같으며 바울은 그것을 내재하는 죄라고 롬7:23에 표현하였다.

이 죄는 구원받은 성도인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

내가 모든 죄를 지을 때 맨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자리잡고 있다.

내 이기심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방법으로 반사되어 나타났다.

1. 나는 섬김을 받기를 기대한다(원한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빛을 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좋은 소리(칭찬) 듣기 원한다.
  4.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한다(원한다).
  5. 나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적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내 이기심의 이런 특성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은 나의 부패된 본성에서 나온다. 내 결심이 아니라.  
나는 의무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죄들은 순간순간 나온다.  
이것들은 원초적인 나의 죄성을 반사해서 보여 준다.

#### 이기심의 특별한 효과들

이기심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내게 생기는가?

나는 이것들을 지적하고 묘사할 수 있는가?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은 도피하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이런 면에서 정확해야 함을 알려준다.

이기심으로 인한 4가지 효과

1. 분노: 내 앞에서 누가 나를 막을 때 큰 분노가 치솟는다. 나는 즉각적으로 말로 내뿜는다.
2. 자기 연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은 것,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와서는 동정심을 표해 주기 바라는 것
3. 쉽게 남을 비난하는 것: 내가 그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여 목소리를 내고 같이 비난하는 것
4.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것: 폭 가리앉아서 쳐지는 것, 소망을 잃는 것, 무 반응하는 것 등

이런 죄가 발동되면

1. 내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내 아내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이나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드러운 감정이 사라진다. 소망이 말라버린다.
3. 사역에서의 역경을 이기고 나갈 힘이 사라진다.

가장 나쁜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이런 죄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견지 아니하는 것이다(갈2:14).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빌1:27).

바울은 나의 불일치를 보여 준다.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간에 바울은 주님께서 내 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것과 그분의 피 값으로 구속받은 내가 내 죄들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만 하는지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그는 내가 이런 죄들과 관련해서 발전시킨 수동성의 패턴을 여지없이 부수어버렸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죄들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강제로 내게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그는 내가 안고 살고 있는 불일치를 보여 주었다.

사실 나는 성적 유혹을 죽여야 함을 깨닫고 의식적인 노력을 인식하며 그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런데 성적인 죄 말고 이런 분야의 죄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나는 정욕은 즉시 의식적으로 공격해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 때문이다(마 5:29).

그런데 나를 엿어때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내가 같은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죄들은 내 노력 없이 성령님의 무의식적인 일에 의해 사라져야만 하였다.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죄들은 용서받은 죄들밖에 없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바울은 내 죄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 있고, 그분의 죽음이 내가 내 죄들을 죽일 수 있게 함을 보여 주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

나의 칭의는 성화 이전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먼저 있다.

주님께서서는 친히 지워 주신 죄들의 권능을 쳐부수시네. 모든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자. 맞는 말이다. 우리의 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제거되었다(골2:14). 이제 남은 것은 성령님께 힘입어 그 죄들의 파위를 부수는 것이다.

그런데 8달 동안 내게 깨달은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제거하신 것과 내가 내 죄들을 정복하는 것 사이의 연결 고리는 성화된 노력이다.

분명히 내게 남아 있는 유일한 노력은 성령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나의 의식적인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수동성을 유지하는 것 즉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여 준다. 그래서 나는 내 과거를 살펴보았다. 왜 내가 수동적이 되었는지 보려고.

### 바울의 세 가지 그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들을 제거하고 내가 노력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을 세 개의 그림으로 보여 준다.

1.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향해 죽었다(롬6:5).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한다(롬6:11-12).
2.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팔려나가서 다른 이의 소유물이 되었다(고전6:19-20).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새 주인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전6:20).
3.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엡4:32). 그러므로 용서해야 한다(엡4:32).

이 세 경우 모두 내가 죄를 죽이려 할 때, 성화의 삶을 살려 할 때 가장 결정적인 힘은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보여 준다.

나를 얽어매는 죄들을 내가 싸워서 정복하려 할 때 결정적인 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죄들은 내가 용서받은 죄들밖에 없다.

눈을 빼버리는 말은 정육 이상의 다른 것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이 세 경우 모두 십자가와 내 죄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 사이의 링크는 성령님께 의해 힘을 부여 받은 나의 의지라는 사실이다.

왜 그런가? 세 경우 모두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것과 매매되어 다른 이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용서되었다는 것이 내 의지를 향한 명령임을 보여 주었다. 롬6:12, 고전6:20, 엡4:32

이런 명령들은 나를 향한 것들이며 내 의지를 주관한다.

다시 말해 내가 성화를 경험하는 것은 의식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나를 얽어매는 죄들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나는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남 탓하는 것, 폭 가라앉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의식적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죄들을 반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나를 빌2:12-13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나는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도이었다.

1.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work out your own salvation)는 말이 생산하라, 효과를 내라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피터 오브라이언의 빌립보서 강해 주석을 보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것”, 물론 이 말은 잘 듣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리스도의 칭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는 이 일을 위해 먼저 십자가와 성령님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2:8).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수동적인 삶을 포기해야 한다. 어떤 죄도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죄들은 내가 성령님께 힘입어 능동적으로 죽여야 한다.

2. 내가 일로 드러내야 할 구원은 지옥 불속에서의 완벽한 구출이라는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등에서 실제로 나를 구출하는 것임을 나는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모든 것을 발견한 효과는 내가 전에 추구하지 않았던 방식 즉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성을 가지고 이런 특정한 죄들을 초점을 맞추어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안목의 정욕을 처리하듯이 8달 뒤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베들레헴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것을 말하였고 내가 배운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였다.

최근 주일 저녁 아늑하고 눈이 내렸다. 나와 아내와 딸은 집에 있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4살짜리 딸이 식사를 마치고 와서 말하였다. “엄마와 저는 컴퓨터에서 수퍼내니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는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나의 이기심, 자기 연민, 남 탓하기, 가라앉기 등이 폭발하였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의지를 동원해서 이런 죄들에게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물론 내 혼에 대고

그리고는 조용히 위층으로 가서 내가 상처받은 것을 보여 주는 어떤 몸짓 등을 의식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서재에서도 싸움을 했다.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 십자가의 소중함,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 유업, 주일 오전 예배의 감격, 예수님의 인내 등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내 마음 속에 그것들을 주어 담았다. 그리고는 주님의 피 값으로 인한 도움을 그분께 요청하였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분노, 자기 연민을 죽이고, 폭 쳐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고후5:7).

이렇게 그것들을 죽이기 시작하여 결국 끝을 보았다.

지금 성장하면 미래가 밝다.

이런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이런 죄성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곤 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다음 몇 가지를 감사할 것이다.

1. 내 죄들을 제거해 주신 것
2. 제거된 죄들의 파위를 부수시는 것
3. 어떤 때에는 성령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나의 의지적 행동을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

나는 이런 발견으로 인해 바울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바울은 나를 얹어매는 죄들과 내가 싸우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였고 내 죄들을 진단하고 가르쳐주었고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었다. 그는 내 목회 사역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과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권:  
바울은 심오한 논리와 풍성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11시간에 걸쳐 존 파이퍼,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강해, 이 책에는 7개 섹션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0. 서론, 1. 그의 변화(1-5), 2. 내 삶을 변화시킨 사람에 대한 사랑(6-10) 오늘부터 3부, 논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에피소드 11부터 14)

바울의 영혼은 논리의 엄청난 파워와 감정의 심오함으로 잘 얽혀 있다. 그는 뛰어난 논리와 풍성한 감정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다.

로마서에 드러난 바울의 생각 혹은 사유 세계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추적해 본 사람은 다 동의한다. 로마서에는 엄청난 규모의 지성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위대한 내용과 빈틈없는 논리로 인해 그것은 가장 위대한 편지, 심지어 그의 대적자들도 바울의 이런 지적 능력을 보았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행26:24

**사고 면에서 성숙함을 보임**

바울은 지적 능력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일부임을 믿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지만(행22:3),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지적 파워를 쓰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회심시킨 사람들 혹은 자기의 추종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mindless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고전14:20).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딤후2:7).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고전10:15).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바울 서신들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벧후3:16

현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지성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마7:1-5

고전6장, 판단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가장 지성이 넘치는 존재, 당연히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

국가나 교회가 사람을 에스뎨어로 만들면 안 된다. 중세 천주교,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

이런 교회나 국가는 사람의 이성을 빼앗아간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는 기능이 빠지면 무지한 사람만 남는다.

**감성 혹은 정서 면에서 부드럽고 투명함**

논리가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서 면에서 성숙하였고 심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의 감성의 깊이, 부드러움, 강도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함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원하였다.

고후6:11-13

살전2:7-8

빌1:8; 4:1

몬12

마귀는 대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

특히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간증 들, 들을 때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

그래서 감정을 조심해야한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무 감정이 없는 것 또한 매우 이상한 일  
하나님, 사람은 다 person, 지정의를 가진 존재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히 이성적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감성적이지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지 못한다.

논리 자체를 펴지 못한다.

심오한 이성과 부드러운 감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별히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 나는 그가 바로 이런 흔치 않은 사람들 중의 하나임을 발견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심오한 지성과 진정성 있는 감성의 소유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그는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안정된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의 논리와 지성은 여러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반면에 그의 동정심과 애정의 능력은 우리를 기죽게 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최소한 나의 지성은 잠에서 깨어나고 감정은 그에게 사로잡힌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 존 파이버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3: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말한다

바울은 그의 시대에 자신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교회 안에서 그의 위상과 업적은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것들보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의 귀중함을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동경한다. 특별히 그러면서도 이런 업적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동경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 사역 경험, 사회의 윤리 도덕 문제, 핍박의 위기, 젊은이들의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이 경우 그들의 영적 실체의 핵심은 행위에 놓여 있다.

그들에게는 이런 행위에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는 분과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마치 조개의 껍데기가 아름답지만 내부는 아무 맛도 없는 것과 같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행사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드려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맛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벧전2:1-2).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 회심 이전과 이후의 큰 업적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당시 이미 종교 게임에서 최고봉이었다. 회심 이후에도 그는 가장 권위가 있고 생산성 높은 그리스도인, 그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행사/업적이 있었다.

그의 옛 종교 친구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완고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를 별것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바울은 이런 게임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사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의 놀라운 과거 업적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의 반대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빌3:4-7

갈1:14

사실 그는 회심 이후에도 업적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가끔씩 그는 자기의 역경과 영적 권위 그리고 많은 영광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가 이룬 기적들, 자기의 꿈 등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하였다.

고전15:10

고후12:11

고전3:5-7

### 예수님이 그의 기쁨이었다.

바울은 회심 이전이나 이후에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그의 자랑이 아니었다.

그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자신의 성취로 인한 기쁨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 보여 주었다.

빌3:7-8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혹은 그분을 아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업적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매일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그리로 이를 통해 자기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갈2:20

그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었다.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그의 믿음의 결합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그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자랑과 환희였다.

우리가 바울과 이야기하면 곧바로 그가 자기가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매우 특별한 친구이다.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런 태도를 발견하기 원한다. 나는 이런 대화와 교제를 원한다.

요15장

즉 업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로 나를 인도하는 대화와 사귄 나는 바울을 통해 늘 이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친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4: 바울은 논리의 불길을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켰다

바울은 심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시적으로 아름다운 글을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어서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인용하는 아름다운 기록을 남겼다.

압도적인 글을 쓰는 것, 이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위대한 업적은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나쁜 사람들도 감당하기 벅찬 에세이, 아름다운 수필, 그리고 사람을 사로잡는 시를 쓰고자 하였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중에 그의 글쓰기 능력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는 밝고 푸른 붓 자국이 있다.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 하자. 그 안의 모든 붓 자국이 다 멋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멋지지 않다. 이런 저런 붓 자국들이 옆의 것들과 합쳐져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날이 갈수록 그의 아름다운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 더 그를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작가이다. 화가이다. 음악가이다. 놀랍지 않은가? 바울에 대해 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밝고 아름다운 청색 붓 자국이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붓 자국이 바울의 초상화에 더해질 때 나는 기쁨을 가지고 웃게 된다.

### 논리적 사상가에서 시인으로

바울은 원래 논리적으로 긴 글을 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엡1:3-14절은 하나의 문장이다.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가 주의 깊게 여러 논제를 펼치는 글임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이런 글을 치밀한 논리와 명확성 조직성을 등을 가지고 쓴다.

롬8장의 예, 31-34절

그래서 이런 글을 접하다가 고전13장을 만나면 깜짝 놀라게 된다.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지혜와 철학의 영향으로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는 교회의 분열(1-4장), 법정 소송, 이혼, 여인들의 옷차림, 주의 만찬 등과 관련된 도덕적 무질서(5-11장), 영적 선물(12-14장), 성도들의 부활(15장) 등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제시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언제나 발생하며 특히 영적 선물(은사) 문제는 기복 신앙이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쉽게 발견된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와중에 13장이 나온다. 그 장의 앞에서도 그는 문제들을 다루고 뒤에서도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사이에 바울의 글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가 들어 있다. 시와 산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역시 논리적으로 글이 펼쳐진다.

한 번 전체를 읽어 보자. 고전 13장

얼마나 글이 단아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면서도 논리적이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

고전12:31,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 더욱 뛰어난 길을 따르라. 13장은 12, 14장의 괄호 가장 육신적인 교회, 13장, 13절, 성경에서 가장 오남용되고 있는 장

사랑만 하는 신(神)은 왜곡된 신, 미움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오류는 미워해야 한다. 깨끗한 것을 사랑하면 더러운 것을 미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요3:16; 롬5:8).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한다(요3:36).

### I. 사랑은 풍성하게 해 준다(1-3)

방언(타 언어), 대언, 지식, 믿음, 주는 것(희생)은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하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엡4:15)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심(살전4:9)

아들의 사랑(요13:34-35)

## II. 사랑은 세워준다(4-7), 고전8:1, 사랑 대신에 예수님과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라.

여기의 4 구절은 charity의 16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7개는 긍정적, 9개는 부정적인 것).

이 구절은 갈5:22-23의 성령의 열매와 매우 비슷하다.

영적 선물들의 목적: 세워 주는 것(고전14:3, 12, 17, 26)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뛰어난 길인 사랑이다.

그런데 (1) 고린도 성도들은 애찬 등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흥하게 행하였다. (2)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하였다. (3) 교만하였다. (4) 서로를 고소하였다. (5) 교회 안의 죄를 자랑하였다(고전5).

## III.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8-13)

8절: 대언, 방언, 지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a. 대언, 방언, 방언 통역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특히 방언) 크게 자랑하였다.

b. 앞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므로 지식은 없어진다. 과일 가격, 자동차 수리, 물리 공부

c. 이런 것들은 언젠가 다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요일4:8, 16).

9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안다. 성경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 아는 사람은 없다.

11절: 고린도 성도들은 없어질 장난감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다.

a. 교회나 개인이나 모두 성장해야 한다(엡4:11-16; 고전14:20; 뱀후3:18).

b.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자라야 한다.

12절: 재림이 이루어져서 몸이 변하면 나에 대해,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13절: 재림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보는 것이 되고 소망은 모두 성취된다.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 셋 중 가장 크다.

a. 물론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욱 크다. 이것은 더욱 뛰어난 길이다(고전12:31).

b.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전14:1).

고전13은 바울의 다른 글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은 바울의 글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12장과 14장을 보면 13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시가 필요하였다.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짓는 것은 사실 바울의 뛰어난 글쓰기 능력의 결과이다.

즉 그의 글쓰기 장르는 단순히 논리적인 편지뿐만 아니라 이런 시도 포함한다.

작가로서 그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글쓰기 능력은 여러 모로 나타나 있다.

### 바울의 산문의 도덕적 차원

이 시점에서 나는 이런 능력이 도덕적으로 위대한 업적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나는 바울의 위대한 초상화에서 이런 아름다운 붓 자국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가 늘 글을 쓰는 방식 즉 논리적으로 말끔하게 글을 쓰는 것은, 내 생각에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이유를 대는 것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직함, 성실함의 표인 것 같다(Integrity, 전 인간적인)

그렇다면 사랑에 관한 한 지금까지 지어진 시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의 도덕적 차원은 어떤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본능적인 기술이 도덕면에서 중립적으로 표현된 것일까?



이처럼 놀라운 논리의 글과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와 유대 문화권에서 스스로 이름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난의 길을 따라갔다.

그는 사회 저명인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고전 13장이 문학 저널에 발표되지 않고 논쟁이 되는 문제들 사이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 또한 고전 13장에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바울이 문학 작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을 볼 때 나는 바울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시는 바울의 삶에 드러난 도덕적 아름다움 측면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의 확고한 도덕적 윤리적 토대가 이런 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5:  
바울은 보통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였다

비록 사람이 다 탐사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헌신'을 깨닫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후1:12).

심오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바람직하려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며 보통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을 표명해서도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이를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필요에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실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복잡한 실제 문제들을 외면하는 방식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순전히 실용성의 표준만으로 진리와 가치를 재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인 것

바울은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계시된 영광의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그는 일반 사람들이 자라도록 하는 일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격려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지혜와 선함과 기쁨 면에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놀라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대한 신비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골1:27

그는 자기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신비들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롬11:33

바울이 이런 신비를 아는 지혜가 있었다 해도 만일 그가 보통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자기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했다면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 주기 위한 방식으로 그들과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였다.

그는 다른 세람들을 세워 주기 위해 모든 일을 하였다.

고리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 선물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세워 주기 위해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통역이 없이 다른 나라 말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의 믿음도 증대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14:26을 기록하였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것을 실천하였다.

고전14:17-19

사실 이것은 놀라운 말이다. 어떤 사람이 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자랑한다면 바울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우월감으로 인한 명성을 쌓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 면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단순함과 진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바울은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고후11:3,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가 추구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진지한 헌신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또 영광스러운 실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서

해답은 다음에 있다.

고후1:12-13

바울은 위대한 대언자들과 철학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신학적으로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타고 누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살전2:3-10

그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흠모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6:  
바울은 숨겨진 영광보다 드러난 영광에 더 놀랐다

오늘부터 4부,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들이 스스로 노래하게 함>, 하나님의 신비의 위대함 찬양  
롬11장 이스라엘의 신비와 구원, 11:33-36,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밑바닥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 높은 길들과 판단들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우리 입을 막고 놀라게 만든다. 사실 우리는 아팔라치아 산맥이 아니라 알프스 산맥의  
높이에 놀라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수가 아니라 미적분학에 놀란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 설교자들과 작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과 판단들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의 높이와 깊이를 언급하면서 보통 신비라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그들의 말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로 인해 놀라게 된다.

즉 그에게는 자기만 아는 신비가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통찰력이 있다.

(\*) 심지어 자기가 바울 이상이나 된다고 착각하거나 자랑함

나는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늘 느끼며 살았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인해 놀란다.  
산을 올라간다고 하자. 산기슭에서 위의 능선을 바라보고 한 봉우리를 보면 감탄하게 된다. 놀라게 된다.

그런데 등산을 오래 하다 보면 밑에서 능선까지 올라가고 한 봉우리에 올라가서 놀라는 순간 눈앞에  
또 다른 산이 있음을 보게 된다.

산기슭에 앉아 저 위의 구름을 보면서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너무나 알지 못해서 놀란다고 하며  
이를 수필로 쓰거나 시로 지으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높은 계시의 행로로 올라가기 위해 그와  
함께 등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1-11장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은 롬11:33-36절 말씀이다. 이것은 롬1-11장의  
절정(클라이맥스)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여기서 무어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한 감탄을 기록하되 그런 부요함을 드러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런  
부요함이 드러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1-11장에서 기록된 계시를 통해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에  
이런 감탄의 글을 쓴다.

즉 바울은 이미 자기에게 계시된 신비들로 인해 감탄하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는다.

11장 30절의 감동과 놀라움은 11장의 끝 부분에 놓여 있다. 11장에서 그는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로 우리를 끌고 갔다.

앞에 있는 세 구절 즉 11:30-32를 읽으면 하나님의 길들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놀라게 한다.

그런데 놀라게 되는 이유는 그 길들이 구절들 뒤에 숨겨져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미 그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요약한다.

롬11:30-32,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공휼을 얻었나니 3)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공휼을

통하여 그들도 공혹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공혹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들을 5분 정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알려진 것들 때문에

찾지 못하지만 이미 드러나 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길들을 사람이 다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엡3:8-9,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9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신비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는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찾을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혹은 부요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이 찾을 수 없다. 혹은 찾기 어렵다.

1.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다. 그러나 더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2. 그것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나 바울은 지금 바로 그 계시를 적고 있다.
3. 영감 받은 계시의 뜻을 찾기 위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볼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중국에는 하늘의 히말라야에 다다를 것이다.

지식을 뛰어넘는 것(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제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한다. 이것은 엡3장에 나오는 기도에 들어 있다.

엡3:18-19,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19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길들을 놀랍게 계시하셨으므로, 바울의 글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산의 봉우리들로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산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쉼르파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산기슭에서 인생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면 나는 바울에 관한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찾을 수 없는 부요하심을 드러내어 선포하라고 하셨음을 알고 있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산골짜기에서 방황하면서 아직 탐구되지 않은 신비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 놀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분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안내를 받을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등반가들을 인도하는 좋은 쉼르파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울은 나를 위협하며 힘든 행로들로 데려가곤 하였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를 사랑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7: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뻐하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권능과 인간의 자유 의지의 범위에 대해 질문을 갖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이 섭리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책임을 잘 결합시켰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질문들은 인격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주 뒤에 지적 설계자 혹은 설계자가 없다면 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를 주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분자들의 운동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거쳐 있으며 그분께 돌아감을 믿었다(롬 11:36). 그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세 인격체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었다. 이 세 분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즉 신성의 본질 면에서 하나이고 세 인격체이시다. person: 지정의, 요일5:7

삼위일체는 큰 신비이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고후4:4; 골1:15)

골1:19; 2:9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롬8:9).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유지되고 있다.

골1:13-17

바울은 온 우주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런 교리에는 숙명론, 운명론 같은 것이 없다. 숙명론을 따른다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무한하게 펼쳐진 것과 같다. 그러나 바울은 우주를 지적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롬1: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맺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바울의 다음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엡1: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않는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이 되게 하실 수 없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롬8:28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을 강제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둘은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다음을 보자.

고전15:1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빌2:12-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13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시니라.

고후8:16-17,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 주신 [하나님]  
께 감사하노라. 17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갔느니라.

이렇게 주권과 의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의지의 방해물이 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계 하신 일을 우리가 잘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우리를 숙명론자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될 대로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위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우주라는 의미 없는 일에 현혹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망을 우리는 받는다.

그냥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롬11:32-36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하나님의 권능, 부요하심, 지혜, 주권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는 기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찬양을 드린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며, 주권과 자유 의지

그는 온 우주를 자기 머리속에 집어넣으려는 이성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를 들어 하늘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였다.

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 의지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고 싶고 기쁨을 우리고 싶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8:  
바울은 세상의 신음과 개인의 고통을 잘 이해하였다

행14, 벤전4, 고후 1, 오늘은 고통과 고난 이야기, 전 세상의 신음과 개인의 고통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았다. 그가 이런 신비에  
대해 조사한 뒤 우리에게 주는 설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신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닥칠 때 고난의 의미를 의미 있게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동시에 왜 온 우주가 그런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개인적 차원에서 전하고 적용한다. 혹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전 우주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개개인의 문제와 전  
우주적 문제를 한 번에 다루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 나는 그를 사랑한다.

새로운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 가르침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의 리더들을 임명한 뒤 바울은 새로운 성도들이 고난을 잘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비하였다.

행14:21-22,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러 터베(6), 19-20

이 구절은 7년 환난 통과 지지 구절이 아니다. 여기의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환난이고 7년 환난기의 환난은 그 특정한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닥치는 특정한 환난이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변영한다는 미끼를 던져 사람을 모은 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때는  
목소리를 바꾸는(그게 아닙니다) 전략을 쓰지 않았다. 그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평이하게 기록하였  
다.

딤후3:12

고난과 환난이 시작될 때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특이한 현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벤전1:5-7, 4:12-16; 약1:1-4

그들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추려진 것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정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촉구한다.

살전3:1-3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렌즈를 통해 개인적인 고난을 봄

바울은 성도들의 영원한 선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라는 렌즈를 통해 성도들이 고난을 보도록  
도움을 주었다.

살후1:4-5, 특별히 5절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핍박의 아픔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사망이든 생명의 어떤 일이든

바울은 지금 온 세상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허무함(헛된 것)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면제되지 않음도 설명해 주었다.

롬8:12-24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류의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신음을 참아내고 있다.

사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신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다수는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제거되었다(롬8:1).

우리는 고전10:13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음은 무한대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시30:5).

왜 온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왜 온 창조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려준다.

롬8:20-22

창조 세상이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실 하나님은 친히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하셨다(창2:17).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망을 보내시고 온 창조 세상이 부패와 헛된 것의 속박 아래 놓이게 하셨다.

다시 말해 인간의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계의 아름다운 기능을 해체해 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부패와 헛된 것은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과 함께 창조 질서를 통해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세상, 미국 중국 대립, 미국 흑인 폭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인간의 도덕적 죄악으로 인해 왜 세상이 물리적 고난을 당하는가?

사람의 죄는 인간의 마음속 행위인데 왜 하나님은 물리적 창조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창조 세상의 속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존 파이퍼의 대답:

온 창조 세상의 물리적 고통은 죄의 도덕적 추함과 끔찍한 결과, 반역 행위를 확연히 보여 주는 증거이다.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우리 마음의 죄들이 영혼의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다.

죄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우주의 불법 행위 즉 아름다운 창조자, 온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 무시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런 일이 생겼다고 불평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라는 불법 행위를 보여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신음의 속박 아래 두셨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심각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싸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는 일이 필요하다.

우주적 비전과 개인적 동정심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과 개개인의 고통에 대한 위로와 동정심, 이 둘 다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고후1:3-11

나는 바울의 이 말(고후1:6)이 네게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에 대한 전 우주적 관점에 감사하며 동시에 자기의 고통을 승화시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에도 감사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4:  
바울은 죄의 참혹함과 사람의 최후 영광을 잘 이해하였다

바울은 인간 본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다. 인간 본성의 극도의 타락, 부조리, 더러움  
그러면서도 인간이 구원을 받아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영광을 얻는 것도 잘 이해하였다.

인간 본성의 황폐함과 아름다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데 우리는  
동의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들은 다 주변 환경 때문이지 인간 본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펼친다. 대개 좌익, 성선설 주장

바울은 어떤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본성의 황폐함, 죄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본성의 최종 영광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인간 본성이 극도로 죄로 가득하다는 현실 인식과 인간이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 가지를 바울은 다 고려한다. 그래서 바울은 비관주의자도 낙관주의자도 아니다.

바울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바꾸셔서 영광이  
되게 할 것에 대해 말한다.

인간 본성의 황폐함

세상 모든 사람들 본성의 황폐함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엡2:1-3,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은 무지가 아니다. 무지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들을 대적하려는  
완악한 마음이 있다.

바울의 글을 토대로 나 자신의 죄성을 살펴보면, 문제의 뿌리는 내가 해야 할 선을 알지 못하는 데 있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선을 거부하는 데 있다.

엡4:18,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  
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런 완고함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내던지는 형태를 띠 수도 있고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롬1:18-21, 28-32

또는 하나님의 법(혹은 지식)을 사용해서 나의 종교적 혹은 윤리적 교만을 강화한다(롬2:1-5).  
어느 누구도 이런 죄의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이 병을 유전적으로 받았기에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칼빈주의자들은 원죄라고 말한다. 바울은 분명히 이것이 있음을 보았고 가르쳤다.

인간 본성이 회복되어 아름답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이와 동시에 바울은 이런 타락이 세상의 재난과 고통을 뒤집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았다. 아담을 통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게 되었고 모든 창조물은 죽음과  
고통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 첫째 아담을 소개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 새로워진 인간들은 정죄에서  
벗어나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는다.

롬5:15-17

다시 말해 타락과 고통 재난 등은 이 세상에서 혹은 우주에서 인간의 최종 운명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위에 영원히 군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상상을 초월한다.

고전2:9

즉 유한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결국 온 창조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다시는 자연 재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천년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과 또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다.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마25장 양과 염소 비유, 이미 7년 전에 휴거받은 사람들

롬8:19-21

이런 날이 오기 전까지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상속 유업이 무료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면서

고전3:21-23

#### 진리의 반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 인간 본성의 사악함과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본성이 회복되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역사의 데이터, 뉴스에서 보는 것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 본성이 처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됨을 믿는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0: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를 심오하게 다루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복종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바울은 합당한 인간 정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외침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존재함을 믿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

인생의 문제들은 많은 경우 복잡다단하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할 때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공식처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게 상담해 주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실제 세상은 심히 복잡하므로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나는 바울 서신을 읽었다.

그 결과 나는 바울이 우리에게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예는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가 설명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시민권 혹은 생활권은 하늘에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골1:13)은 기독교인들이 인식하는 근본적인 현실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그분과 함께 일어나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음을 뜻한다(엡2:6).

골3:1-3

이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빌3:20-21

이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이니 이 땅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의 견해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을 받아 주님을 위해 이 땅의 기관들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벧전2:13).

그리스도를 공경하면 그리해야 한다(엡5:21).

세상 권력과의 관계

비록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그래도 각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롬13:1

인간 정부 뒤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손을 보고 그분으로 인해 이런 기관들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경제적인 영역의 문제도 보아야 한다.

엡6:5-7

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엡5:22; 6:1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과 땅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일이 잘 안 풀리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터져 버린다. 이것은 끝에 이야기할 것이다.

항상 자유롭지만 항상 섬기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과 다른 기관이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런 기관들의 권위에 순종한다.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의 권위들이 요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 정부, 가정, 노사관계를 보라.

100% 순종은 불가능하다.

파이퍼와 가장 친한 분, 웨인 그루뎀, 성경과 정치

세상 정부에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저항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기관 혹은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고전7:21-23

고전6:19-20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러므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기관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롭다: 무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의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자유

갈5:1-3, 우리를 속박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보면 저항해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미국의 출생

####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세상 법이나 기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

고전9:19

자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이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음에 감사한다.

빌2:4

나는 바울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어서 감사하고 그를 사랑한다.

##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리: 바울은 고독한 삶이 아니라 친구들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

오늘부터 5부, 귀중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개인적인 열정

오늘 말씀은 나와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많은 경우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또한 그는 교회 안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다.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외롭다는 말이 있다. 사장, 담임 목사, 비영리 단체의 장, 큰 권위를 가진 정치인, 자기 전공 분야의 대가, 수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인 배우나 가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된 삶을 살면서 상호 교제하는 실제 삶에서 격리되어 있다.

1. 고용자나 팬들이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일 수 있다.
2. 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홀로 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일 수도 있다.
3. 그렇게 할 때 일반 대중이 경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4. 혹은 지도자들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5. 혹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실제든 가상이든)
6. 압력이나 스트레스에는 강하지만 위계질서가 없는 구조의 모임이나 생산성 목표가 없는 모임에는 편안함을 못 느끼는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에

유명 목사들: 성도들과 절대 식사 자리 같이 안 함, 고급 요리사 식사, 강단 의자를 보라.

### 허세를 부리지 않는 능력

반면에 정답게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며, 상대방의 인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이들 이야기도 하며 점심을 먹다가 옷이 조금 더러워져도 신경 쓰지 않은 리더들도 간혹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는지 놀라게 된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게 된다.

우리는 바울이 기독교회 안에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아무도 가 보지 못한 정상에 있었다.

다른 사도들도 물론 권위가 있었지만 그를 능가하지는 못했다.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많은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전14:37-38을 보라

만일 온 우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역을 위임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이런 말은 거만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행26:16-18).

만일 바울이 교회들을 타고 누르려 했다면 그의 이런 말은 거만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후10:8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고후10:8

이런 깊은 확신으로 인해 그는 고후1:24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파워에 주목할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였다(고전4:1).

### 친근한 거인

그는 거인으로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교우 관계를 보면 정말로 놀랍다. 로마서 16장을 보라. 그가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라.

롬16:5-16

이 12구절에서 그는 무려 16회나 인사하라고 한다. 이런 인사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1. 사도 바울, 2. 편지의 수신자들, 3. 그들이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사도 바울과 제 3자 사이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의해 무언가가 전달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문안 인사이다.

그러면 문안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그는 4번이나 분명하게 “나의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쓴다(5, 8, 9, 12).

말 그대로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였다. 이 구절들은 그의 사랑을 말한다.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날라다 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내 말을 받아서 그것을 병으로 삼아 그들의 삶에 내 사랑을 부으라” 몇 명에게. 26명에게

이런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놀랍다. 나는 이런 편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26명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내 기억에 이런 식의 문안 인사 권면의 글을 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나누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1세기부터 가장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런 인간관계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된다.

더욱이 그는 아직 로마에 그 전에 간 적이 없다. 이 26명은 모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는 어디에선가 그들을 만났고 그 뒤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권위로 인해 이런 친구들을 향한 애정이 메마르지 않게 하였다.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여러분은 바울이 그들을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다.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다.

그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것을 걸어 올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존중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2:**  
**바울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몸의 일원으로 생각하였다.**

초대 교회에서 바울은 많은 권위를 행사하고 존경을 받았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모두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온 몸에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선포한 것을 스스로 실천하였다. 어떻게 아는가? 아무도 “나는 네가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가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격려받는 것과 그들에 의해 강하게 되는 것을 동경했다.

바울은 13개 혹은 14개 서신서에서 적어도 16번이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다.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 권위의 호칭이었다(고전14:37-38)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남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음을 뜻한다.

크리스천의 권위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벧전5:2-3).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고 세워 주는 것이다.

이것이 참 힘들다.

**권위적이지만**

바울은 직무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섬기는 중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에게서 에너지를 다 빼앗아간다.

빌2:17,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러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고후12:15,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골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살전2: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다.

딤후2:10, 그러므로 내가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뎌온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딤후4:6,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도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었다.

그의 권위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 주기 위한 것이었다.

고후10:8,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고후13: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자기의 권위와 힘을 위해 늘 주님께 의지하였다.

빌4: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섬기려고

**개인주의 혹은 상호 의존성**

남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면서 자기는 받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는 무언가 흠모할 만 한 것이 있다. 성도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위대해지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오직 자기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얻도록 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교제와 도움도 받게 하셨다. 물론 이것도 주님을 통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도움을 받아요.”

이런 것,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들이 서로 의지해야만 함을 가르쳤다.

고전12:18-22

바울도 이런 관계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바울도 포함된다. 사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몸의 일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시므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즉 그분께서는 최종적인 리더, 모든 것의 공급자, 1) 직접 공급도 하시고, 2)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도 하신다.

엡4:15-16,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큰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 빠지는 함정: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 필요를 말하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리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롬1:11-12,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롬15: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귄다면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살전2:17-20

한 사람의 위대함을 재는 척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평범한 공통적인 은혜 이상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I am one of you. 나는 너와 달라. No!

바울은 겉치레가 전혀 없이 자기의 권위와 힘과 명성을 유지하였다.

그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 주기 위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늘 놀라울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 파트너십을 기뻐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그의 겸손한 자세는 늘 그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교회에서의 일 마12:7

주님의 말씀: 막10:42-45

히2:11, 17-18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3:  
바울은 단호하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

바울은 단호하며 힘 있게 말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와 관련 있는 교회들을 심히 부드럽게 대하였다.

두 부류의 사람

1. 우리는 무뚝뚝한 사람들을 안다. 그들의 무뚝뚝함은 종종 거칠게 불친절하게 바뀐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그들에게 인격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이유: 그들이 좌절과 분노 외에는 자기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칭찬도 잘 안 한다.

이들은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 같은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무언가 놀라운 경험을 갖지 못한다.

2. 반면에 우리는 늘 쾌활하고 웃기를 잘하며 칭찬하고 부드럽고 친절인 사람들을 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런 점에 놀란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고 성경적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나 잘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이들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행등과 부조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 이슈로 큰 싸움을 할 때에 이들은 조용히 지낸다.

차별금지법 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회원이 악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아 권징 문제가 생길 때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들을 교정해 줄 줄도 모르며 권면도 모른다. 이들은 항상 긍정적이거나 조용히 지낸다.

우리가 그들의 친절함이라고 보았던 좋은 특성이 불안정한 요소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확신이 없다. 용기가 없다. 이들은 갈등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모든 것이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풀리기만을 바란다.

긍정적으로 보이기 원하면서 비판적이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웃음 뒤에 무언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된다.

바울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비판을 가할 때는 확실히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동시에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힘 있게 비판을 하고 평상시에는 격려와 긍정과 친절함을 보이는 화평한 자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화를 내는 것은 흔한 일이며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시간에 그저 감사하는 감정, 좋은 것을 흠모하는 감정, 무언가를 기대하는 감정,  
좋은 뉴스를 보고 칭찬하는 감정, 누군가를 동정하는 감정, 나쁜 뉴스를 보고 슬퍼하는 감정만이 풍부하  
기를 원한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참으로 남을 칭찬하는 일을 잘했지만 비판을 할 때는 직설적으로 단호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지도자들에 대한 갈등(파당), 교회 치리(재판 문제), 이교도 신들에게 바친 제사 음식 먹기, 주의  
만찬, 예배 때 여자들의 위치 문제, 영적 은사, 바울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 그래서 바울에게  
큰 두통거리였다(고후11:28).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보자.

고전1:4-9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만 이렇게 좋은 것을 기술했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대하였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글로는 친절한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매우 통명스럽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로나 개인적 만남으로나 감정적으로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살전2:6-8을 보라.

이런 사람이지만 그들을 책망해야 할 때가 오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부드러운 서문을 쓴 뒤 바울은 고전11:17에서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사람들 뒤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있는 앞에서 그대로 사실을 말하였다.

무뚝뚝하며 짧게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얼마만큼 책망하고 교정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가능한 한 책망과 교정은 짧게 하고 그들을 구해 주려는 심정을 해야만 함을 그는 알고 있었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형제에 대한 그의 염려를 보라.

사실 바울도 그런 사람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전5:1-6).

고후2:5-9

참으로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가?

그는 “나를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함.

고후2:8을 보라.

즉 강하게 단호하게 말할 때에는 주저함 없이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칭찬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4:  
복음의 정확성을 잃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실수에는 유연하게 대처함**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극도의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함을 가진 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 그는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관대하였다.

나는 바울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사실 나는 바울로 인해 당황할 때가 더러 있다.

**갈라디아서: 화를 내고 당황함**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을 기록한 서신이다.

그냥 보면 그는 상당히 화가 난 것 같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전한 이런 복음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는 조금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갈3:1; 4: 4:9-11

그러나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 그는 좌절감이 아니라 분노를 느꼈다.

“늑대가 양들을 흠어 놓으면 당신은 양들이 아니라 늑대에게 화를 내야 한다.”

다음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되는 가장 모진 구절 중 하나이다.

갈1:6-10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항상 이런 형태의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이 구절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강경한 말을 담고 있다.

바른 복음이 없이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해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멸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면 그들에게 파멸이 닥칠 것을 말하고 있다.

**빌립보서: 사랑이 없는 선포자들의 선포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이 상황을 보면 그의 반응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왜 그럴까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먼저 자기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빌1:14, 여기까지는 참으로 고무적이다.

그 뒤에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빌1:15-18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선포하였다.

구원받으려면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필요하다. 할례

이것은 거짓 복음, 그러므로 그는 강하게 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빌립보서의 경우

거기 선포자들은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같은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단지 바울을 감옥에서 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더 열심히 전하였다.

이 경우 그는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므로 오히려 자기는 기뻐한다고 하였다(18).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에게 화를 낸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사실 바울에게는 빌립보서의 상황이 오히려 개인적 원한을 드러내기에 더 합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복음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이 두 경우를 보면 바울은 쉽게 자극을 받아 화를 내기보다는 놀랍게도 원칙에 따라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악당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는 그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바울이 간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그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어쨌든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 경우 바울은 문제를 잘 다루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기분이 상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었다.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느냐가 그의 관심사였다.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상황을 보면서 나는 내가 알게 된 사실을 기뻐하게 되었다.

나는 복음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단호하지만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연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사랑이 없는 선포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바울은 로마에 있던 악당 선포자들에 대해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왜곡을 가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복음을 전할 때 말도 정확해야 하고 태도도 좋아야 하지 않는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았다(갈2:14).

큰 책망: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

로마 교회의 경우에도 사랑이 없는 그 선포자들의 태도는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았다. 책망 없음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의견을 주고 싶다.

1.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잘못 되었을 때는 복음 선포자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바울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부패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반면에 친절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바울은 부패된 복음 선포자보다 부패된 복음이 사람의 구원에 더 많은 해를 끼침을 알고 있었다.

2.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대적자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사실 빌립보서의 거의 모든 구절은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한다.

빌2:3-4, 사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다. 사실 바울은 자기의 투옥을 기쁘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1장에서 전략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내하며 은혜롭게 그들을 대한 뒤 2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들의 문제를 들고 나와 그들의 태도가 좋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접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간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 목회의 지혜

갈라디아의 상황과 로마의 상황을 더 많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나는 그를 흠모할 수밖에 없다.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정확성을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음으로 인한 사랑과 겸손과 친절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그가 다르게 처리한 것은 일관성의 결여가 아니라 목회의 지혜라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경우 바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더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

그는 많은 것을 염두에 둔 저술가요 사상가였다. 내가 그로 인해 많이 당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또한 그는 은혜롭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회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흠모하고 사랑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5:  
바울은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리라는 특별한 야망에 사로잡혀 사역을 감당하였다(롬15:20). 그는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는 늑대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팀 사역을 믿었고 혼자 여행하려 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지지하는 크리스천 성도들의 공동체 근처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였다.

현재 서구권에 사는 우리 혹은 지난 300년 이상 서구권에 산 사람들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급자족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며 큰 공적을 쌓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런 영웅적인 삶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미덕들이 여러 들어 있다. 그러나 바울의 삶 전체를 볼 때 바울은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삶을 권장하지 않는다.

둘씩 하는 팀 사역의 원리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독립적 개성이 없이 주변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든지 그 그룹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자기를 적응시키면서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사는 것들로 비유를 바꾸면 어떤 이들은 돌고래 같은 강인한 존재가 아니라 해파리처럼 흐물흐물댄다. 이들은 시류에 따라 늘 왔다 갔다 하며 등뼈가 없어서 밀려오는 해류에 맞서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데 바울은 카멜레온이나 해파리가 아니었다. 사람이 카멜레온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때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감옥에 갇혀 순교하지 않는다. 카멜레온은 적당히 타협한다. 타협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꾼다.

한편 바울은 독불장군도 아니었다. “여러분이 무어라 하든지 나는 스페인에 가고야 말 갈 것입니다!” 아니다. 롬15:23-24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 즉 둘씩 같이 보내는 방법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팀 선교를 찬성하셨고 바울은 그런 방법을 선교 사역에서 실행하였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둘씩 내보냈다(막6:7). 70명을 보내실 때도 그리하셨다(눅10:1).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독불장군 식으로 홀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의 비전에 제동을 거셨다.

절대로 홀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 드러난 바울의 전체 사역을 보면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사역하였다. 예외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런 규칙을 따랐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바울과 실리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사역하였다. 그곳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려 하자 바울과 실라는 근처의 도시 베레아로 피신하였다. 그런데 봉기를 일으킨 자들이 그곳에도 왔다. 위험이 너무 심해지자 그들은 바울을 홀로 아테네로 보냈다(행17:13-14),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바울의 명령을 기록한다.

행17:15

다시 말해 바울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홀로 사역하는 것은 그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의 동역자들이 속히 오도록 명령을 주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러 가려 할 때 마가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져서 따로 떠났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행15:39-40

다시 말해 분쟁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의 한 팀이 깨지게 되었지만 바나바든 바울이든 혼자 가려 하지

않고 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팀 사역을 중시하였다.

들고래도 좁은 데서 수영한다.

나 자신의 내부를 살펴보고 내가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홀로 큰일을 이룬 사람들이 보여 준 용기와 확신을 보게 된다, 사실 나는 그런 것들을 흠모한다. 사실 이런 성품이 없다면 성숙한 성도,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죄 많은 세상을 대적하여 홀로 서려면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강인함은 동료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더 빛을 낸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바울만큼 강인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로, 특히 동료 파트너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다음은 디도로부터 그가 위로받은 것이다.

고후7:5-6

위대한 사도 바울이 디도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더욱더 바울을 흠모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 또한 일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들썩 들썩 나가서 선교하는 방법으로 보여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더 좋아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창1-2장,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전4:9-12

그러므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다.

모든 사람이 팀을 이루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팀을 이루어서 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일은 팀을 이룰 수가 없다.

예수님의 선교, 바울의 선교: 그 사역 자체가 함께 해야만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듣고는 교회도 반드시 복수 장로/목사가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복수가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논리로 나가면 삼천포로 빠진다.

교회, 시작하면 대개 목사와 몇 명의 성도, 어떻게 복수 목회를 하는가? 거의 불가능

교회가 커지면서 부목사, 조력 목사, 전도사, 집사 등이 팀을 이루어 집행부를 구성해서 한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목사와 팀을 이루어서 교회의 일을 한다.

파이퍼도 한때 담임 목사, 여러 부목사

지금은 desiringgod 사역의 대표. 여러 사람이 그와 같이 일한다. 그래고 대표는 파이퍼

선교의 경우 대개 부부가 나간다. 이것이 이미 공동 사역이다.

다른 사람과 해야만 공동 사역이 아니다.

구약 시대 대언자들: 이사야, 요나,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 아모스, 에스겔 등 다수가 혼자 사역을 감당하였다. 어떤 때는 혼자 해야 한다.

오늘의 레슨: 함께해야 하는 일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혼자 해야 하는 일도 있다.

모두가 대표는 아니다.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일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6: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식하였다.

오늘부터 6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 사람(25-29)

바울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번 주제는 칼빈주의라는 주제를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큰 혼동을 주는 주제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파이퍼, 맥아더 등은 칼빈주의자들이다.

나는 파이퍼, 맥아더 등을 좋아하고 소개도 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칼빈주의: 칼빈이 가르쳐 준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들이 늘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면 그런 주권은 성경에 없다. 이것이 극단적 칼빈주의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로 나가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宿命론에 빠지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宿命론: 이미 만세 전에 시나리오에 의해 예정된 삶을 지금 녹화 방송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宿命론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전도나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  
대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믿는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사역한 영국 침례교 선교사(1761-1834년). 근대 선교의 아버지. 영국 노스햄프턴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구두수선 기술을 배웠다. 19세에 기도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23세가 되던 1783년 10월 5일에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 목회에 전념하던 어느날 「쿡 선장의 항해기」(Captain Cook's Voyages)를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던 시기였다. 그는 지도를 집에 걸어두고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1792년 32세 되던 해 캐리는 87쪽 짜리 선교 책자를 발행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침례교 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창설하였고, 노팅엄에서 개최된 선교 대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는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말은 지금도 침례교 선교 모토로 사용되고 있다.

이듬해인 1793년 33세 되던 해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행 배를 타고 5개월여 만에 인도 벵골에 도착했다. 그는 마드라의 농장에서 일하며 인도 말을 배웠고 자비량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1794년 5살 난 아들이 질병으로 죽는 등 캐리는 말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학교도 설립하였다.

그는 1799년 세람포(Serampore)로 선교지를 옮겨 조수아 마쉬맨, 윌리엄 워드 가정과 공동 생활을 하며 전도와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하였다. 특히 그는 인도를 대표하는 산스크리트어, 벵갈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1809년 벵갈어로 신구약성경을 완간하였다. 1819년에는 세람포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는 1834년 세람포로 사역지를 옮긴 지 34년 만에 73세의 일기로 인도 땅에 묻혔다. 캐리 이후 세계 교회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다. 윌리엄 캐리는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도전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나태한 영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윌리엄 캐리 [William Carey] (교회용어사전 : 교파 및 역사, 2013. 9. 16., 가스펠서브)

윌리엄 캐리의 선교 비전,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당시 장로교인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 인도든 영국이든.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

그럼에도 캐리는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인도 선교, 성경 번역,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의 허드슨 테일러,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이번 장에서 파이퍼가 말하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울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다.

죽 나는 칼빈주의자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바울을 보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할 필요도 없는 말, 이런 말을 하려고 이번 장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장은 그대로 제시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예정이 아니라 미리 아심에 근거한 선택과 예정을 믿는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벧전1:2

롬8:29-30

행13:48

엡1:5, 11

이런 데 나오는 예정은 구원받을 자 등이 미리 정해졌다는 말이 아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오류는 무엇인가? 칼빈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오류는 예정(predestination)을 구원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관찰해 보면 “예정”이라는 것과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미리 선택되었다고 말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예정하셨다고 주장한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는 칼빈주의가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후에야 칼빈주의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구원 과정: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중생시키신다.

그러면 그들은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중생 그 이후에 사람이 믿을 수 있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곧바로 중생하며 구원을 받는다. 구원과 중생은 동시 사건

그러므로 그들은 제한 속죄를 가르치게 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성경에 위배된다. 요3:16, 요일2:2

이러면서 그들은 로마서 9장을 개인의 선택과 예정으로 해석한다.

롬9-11장은 육적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씨)은 어떻게 되는가?(롬9:3-4; 10:1, 21; 11:1-2, 26, 28), 카톨릭 교회와 장로교회 등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롬9:15-18을 보자.

여기를 보면 인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 있다.

칼빈주의자들의 해석: “내가 천국으로 예정한 자들을 천국으로 보낸다. 사람 편에서는 의지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No!

칼빈주의의 가르침:

하나님이 공흠을 베풀 자들을 창세 전에 정하셨다.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동일한 하나님이 저주 받을 자들을 창세 전에 정하셨다.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은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다(Reprobates).

그러나 롬9:15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15절은 단순히 사실만 진술한다: 즉 하나님이 공흠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푸는 것은 사람에게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17-18절: 파라오의 예(출9:16)

하나님의 공흠을 얻지 못한 자, 마음이 강박한 자(렘17:9)

왜 공흠을 얻지 못하였을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아니면 그가 원치 아니해서?

칼빈주의자들은 파라오의 예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심판의 예로 사용한다. No!

파라오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작용한다.

출3:19, “그가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파라오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파라오를 강박하게 하는 것도 그분의 미리 아심에 달렸다.

그를 강박하게 하신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은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문맥이 무엇인가? 13-14를 보라.

롬9장의 초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였는가?(Election)

이스라엘(야곱)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의 씨이다.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는 곧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는 곧 “내가 야곱을 택하였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에서도 육신의 복을 받았다(창27:26-29, 39절).

이 모든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다.

특히 9장은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하는 내용, 여기에도 미리 아심이 작용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시21:13; 시63:2; 71:18).

나는 하나님의 공흠을 믿는다(시78:38; 103:13).

하나님의 주권과 공흠은 서로 얽혀 있다(애3:31-33).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서로 얽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넣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7:  
바울은 행복하신 하나님을 전한 사도였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발견하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였다.

파이퍼는 기독교 희락주의 전도사

매우 지성적이고 심히 논리적인 신학을 제시하며 심오한 책들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넘쳐나는 기쁨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철학의 골수가 기쁨이고 그의 애정의 최고 정상이 기쁨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은 무한대로 행복하신 하나님의 사도였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철저히 부수어 버린다. 그는 심히 지성적인 사람이다. 그의 신학은 참으로 논리적이다. 그의 편지는 많은 정성을 들여 세밀하게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고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의 이해의 핵심이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로 표현한다. 자기의 작은 아들이 돈을 다 허비하고 왔을 때 기뻐하면서 그에게 큰 잔치를 차려 준 아버지.

마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신실하게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은 심판 때에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준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말한다.

이 교리는 내게 말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딤후1:11)  
파이퍼의 번역: 기독교의 복음을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소개한다(딤후1:11).

그는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찬양의 메시지를 기술하였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딤후6:15).

찬송받으실 하나님=행복하신 하나님

여기서 찬송받으실은 blessed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찬송받는다라는 만족하신다. 행복하다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다.

삼위일체의 기쁨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울한 하나님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

천사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다(눅2:10).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울한 하나님이 아니라 넘쳐나는 기쁨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15:11; 17:13).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이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바울의 이해의 핵심이었다.

바울은 기쁨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맛보았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였다.

그는 가끔씩 간헐적으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 즉 햇빛이 비칠 때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의 기쁨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놀랍게도 더 확실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롬5:2-3, 11

고후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후7:4,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사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고후12:9,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뻐하라는 권면을 주면서 이런 기쁨이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임을 가르쳤다(갈 5:22).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효과이다(롬14:17).

기쁨은 사랑의 일부이다.

고전13:6,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즉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살았다.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그의 복음 선포의 큰 목적 중 하나. 즉 사람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는 2번이나 자기의 사역의 목적은 자기가 복음을 전달한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빌1:23-26

그는 여기서 주님께 곧장 가서 기쁨을 누릴 것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땅에 남아 있을 것인지 고민함

그의 대답: 빌1:25-26, 이같이 확신하므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빌 1:26)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의 기쁨(그의 번역)

내가 땅에 남아 있다면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기쁨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이 땅에 살았다. 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분을 기뻐하면 사랑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지쳤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살면서 동신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빌1:21,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의 의미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사역하였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하게 말하였다.

고후1:24,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는 초대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밑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말로 말한다. 그리고는 두 가지를 긍정적인 말로 말한다.

1. 우리는 너희와 함께 일한다. 너의 위에서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2. 너희의 기쁨을 위해 일한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목표를 너희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일의 핵심이다.

이런 기쁨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기독교란 열등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 계획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롬5:11).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기쁨은?

기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까요?

고전13:13, 그러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는 기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이퍼의 대답: 기쁨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필수적이므로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만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기쁨을 떼 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지 않는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그분을 끌어안는 것이다.

소망은 앞으로 있을 보상을 기뻐하며 미리 맛보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을 넘치도록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 특히 영원한 필요를 채우기를 구하는 것이다.

나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의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앞으로써 갖게 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자기 사역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쁨의 정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것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을 보라,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갖게 된 것을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전해 주려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쓴다.

고후2:3-4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노력이다.

선교사들 같은 경우 이 일을 위해 목숨을 희생당할 수도 있다. 바울이 그러하였다.

바울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를 사랑하고 바울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닌가?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8:  
바울은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사도였다.

바울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결점을 숨기기보다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더 성화와 기쁨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존경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애써 바람을 넣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좋은 존재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걸치레나 위선을 싫어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원한다. 자기의 결점에 대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의 결점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한다. 그들을 더 믿는다.

바울은 가장 엘리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되도록 정해졌다(갈1:15).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뜻이며 그분에 의해 파송을 받아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현 시대 삶에서는 완전한 삶이 없다.

초대 교회에서 그가 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약점이나 죄를 숨김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후3:18,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에서도 구원하신다. 이것은 성화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구원은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영적 어둠에서 데리고 나오신다(고후4:4-6).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롬 6:5).

그들이 완전한 의를 가진 것으로 여겨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롬8:9; 6:23).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과정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성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가기 전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의 목표는 언젠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직 거기에 있지 않음과 자기가 완전하지 않음을 신인한다.

빌3:11-12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위해 자기를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기 여행의 끝에 다다르지 않았다. 이 여행은 꾸준히 죄와 싸우는 여행이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딤후6:12

바울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고전13:9-10, 12

바울의 놀라운 고백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자기의 불완전함과 갈등을 고백하였다.

롬7:15, 18, 22-25

하나님께서서는 바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그는 자기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자기 부인 열정 등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였다.

왜 바울은 천천히 구원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대해 갈등을 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 바울은 모테에서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언젠가 강력한 힘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만들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이 살인자가 되고 자신의 아들과 그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셨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답을 들어보자.

딤후1:13, 15-16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셔서 참으로 자기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처럼 구원받게 하시려 한다고 기록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인인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큰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앞으로 믿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인내를 보여 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바울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바울의 연약함은 우리가 불완전하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된다.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권위가 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불완전함을 가진 채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다.

그는 자기의 불완전함을 공개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것은 결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이 좋다는 신호이고 내적으로 겸손하게 안전을 확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나는 이런 종류의 성품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신뢰한다.

존 파이버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29: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였으나 자만하지 않았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선교사 중 하나이다. 바울 시대 이후로 많은 선교사가 나왔지만 그의 선교 범위, 희생, 결과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였다. 1, 2, 3차 선교 여행, 적어도 20,000킬로미터, 심지어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의 집안사람들에게도 복음 선포,

바울은 그리스도를 펴박하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였다. 오랫동안 그의 동료였던 의사 누가는 바울의 생애의 대부분을 기록하면서 그의 회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행9:1, 3-6

회심 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눈을 열어 주고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설명하도록 그에게 아니니야를 보냈다. 그때 아니니야는 예수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다.

행9:15-16

나중에 바울은 이 일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하였다.  
행26:16-18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용기 있게 희생을 해 가며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보면서 자기가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오랫동안 목사로 섬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않는 최전선을 향해 밀고 나가야 함을 인식하였다.

롬15:20

이처럼 복음이 다다르지 않은 지역들로 밀고 나가려는 그의 야망은 로마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롬15:19, 23-24

사실 그는 복음 전도자(Evangelist)도 목사도 아니고 최전선의 선교사였다.

내가 이 지방들에서는 더는 일할 곳이 없다는 바울의 말, 그런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바울은 그런 지역에 디모데를 목사로 남겨두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딤후4:5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를 복음 전도자로 보지 않았다. 복음 전도자(부흥사)는 대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일한다. 그들은 교회를 캠프로 삼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과 야망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그를 목사나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선교사라고 부른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의 사명이다. 이런 사명을 이루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고 또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공도 이루었다. 내가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부 이탈리아까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런 교회들은 그 뒤에도 수 세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자를 만들어 교회를 시작한 뒤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들을 잇은 것 같지는 않다.

바울의 14권 서신서는 바울이 그런 교회들을 돌보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기의 선교 사역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실 그가 이룬 성취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자기가 맺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롬15:17-19

다시 말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있어났다. 사실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전1:31에서 이렇게 말한다.

갈6:14

빌3:3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바울은 왜 자기가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전3:5-7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였음을 알았다.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하였음도 알았다. 자기가 자기 주님께 신실하게 행하였음도 알았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이나 수고를 부인하는 어떤 인위적인 겸손 등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수고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였다.

골1:28-29

바울이 행한 일 속에서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크게 일하셨다.

이것은 크리스천 삶의 파라독스이고 비밀이다.

특별히 바울 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 선교사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하다.

즉 우리는 전력을 다해 수고한다. 그런데 이런 수고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확고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갈2:20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으며 매일 매시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믿음은 그 특성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것에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바울의 선교사 삶의 핵심이었다.

위대한 삶

나는 이런 종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에게 큰 성공이 없었다면 우리는 덜 놀라게 될 것이다. 또 그의 겸손도 크게 놀라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희생을 많이 하고도 모든 칭찬과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것을 볼 때 나는 “이 사람의 삶은 위대한 삶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알기 원한다. 또한 이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무엇이 위대한 삶인가? 바울처럼 많은 업적

달란트가 다 다르다.

업적이 많든지 적든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고전15:9-10)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30:  
바울은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였다.

바울은 진리와 교리의 성숙을 추구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쉬지 않고 실제적인 부담을 졌으며 자기 사역을 통해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듯이 교회들이 그렇게하기를 원하였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낭만적인 견해를 갖지 않았다.

그는 가난이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든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구약성경을 읽었다.

잠28:3

그는 주인에게 많은 빛을 탕감 받은 종이 자기에게 조그만 빛을 진 다른 종을 핍박하는 것을 묘사한 예수님의 비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마18:23-35).

따라서 그는 율법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출 23:3).

그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를 미워하심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또한 가난한 자들이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심도 알았다.

이것은 구약 시대 대언서들에 잘 기록되어 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 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암4:1-2

그는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 이것을 잘 알았다.

약5:4-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들을 만드셨고 그분의 대언자들은 착취에 대해 경고하였다.

신24:14,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네 형제든지 네 땅의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잠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쫓겨난 자들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 그분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그분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도들의 열정

내가 이런 배경을 길게 말하는 것은 바울과 초기 사도들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큰 관심을 두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등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서로의 사도직을 승인할 것인가였다. 그들은 그리하였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슈는 아니었다.

갈2:9-10을 보자.

초기 사도들과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선신서의 여러 부분과 그의 행적이 드러난 사도행전에서 그가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을 한 것을 본다.

고후8-9는 고린도의 크리스천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본을 받아 모금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관대하게 베푼 두 지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롬15:25-26,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는 결국 바울이 이 모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을 기록한다(행24:17).

#### 순수한 교리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

이 위대한 사람이 늘 가난한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현대에는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리더들이 있고 교리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리더들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두 그룹은 대개 두 개를 동시에 하지 않는다.

진리와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리더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면 성경의 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큰 관심을 두는 리더들은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낀다. 이런 두 부류의 리더들이 상대방을 향해 보이는 의심의 눈초리는 어떤 특정한 대와 장소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두 부류 중 하나로 밀어 넣을 수 없기에 나는 큰 감명을 받는다, 바울은 교리적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그의 사역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는 교리적으로 진한 서신을 보냈다.

엡4:11-14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거짓 교리로 인해 더 많이 나쁘게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물질의 기근은 결코 아무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기근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모든 고통(가난 포함)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특히 지옥 불의 영원한 고통에서(엡4:28; 살후1:9)

#### 구원의 현실화

그래서 그는 총체적 진리를 말해야 하는 교리 사역과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위대한 사역에 자기를 내주었다.

그는 혼에는 구원을 가져다주었고 몸에는 구호물자를 주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구원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상처 입은 성도들을 붙잡히 여기는 것을 포함한다.

이 구원은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영원히 바꾼다.

착취하는 사람에서 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구원을 삶에서 실제로 구현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쪽으로 쏠리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리더는 아니었다,

그가 영원을 위해 진리를 다루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다루는 것을 볼 때 나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 두 개가 바울 안에서 잘 조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바로 이 사람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 전도와 구제

약2장

우리 교회도 잘 살펴야 한다.

또 단순 구제뿐만 아니라 장학금, 인재 키우기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존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31:  
바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31번째 강해, 오늘은 7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마지막 에피소드,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의 가장 위대한 구절을 주었다.

바울은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실히 받는다는 것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위대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내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즉 확실한 소망을 주는 구절인 8:32를 내게 주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생각 체계를 바꾸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소망으로 가득한 변화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의 논리를 통해 내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며 나를 변화시켰다. 당시 나는 23살이었다.

전에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몰랐다. 그런데 23살에 이 구절을 다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이것을 확고하게 심으셨고 그 이후로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실제적인 삶을 살 때 소망을 갖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다. 말 그대로 나 즉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과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다. 그런데 롬8:32는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내 삶의 확고한 기초가 되었다.

롬8: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이들도 이 구절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롬8:32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과 그 안의 논리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는 구절이다.

로마서는 가장 위대한 책이며 이 안에는 논리가 있다. 나는 그것을 하늘의 논리라고 하겠다. 이런 논리는 어떤 기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동하며 사람을 설득하는 논리이다. 영어로는 ‘아포르티오리’(afortiori)라고 부른다. 이 라틴어의 의미는 ‘더 강한 것으로부터’이다. 이 논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어떤 힘든 것을 하기 위해 힘을 들였다면 그것보다 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라도 힘을 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포르티오리 논리이다.

아이에게 “옆집에 있는 스미스씨 집에 가서 망치를 빌려오렴.” 아이의 말: “그런데 스미스씨가 망치를 빌려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스미스씨가 분명히 망치를 빌려줄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논리를 써야 할까? 바로 이때 우리는 아포르티오리 논리를 쓸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제 스미스씨는 하루 종일 자기 차를 빌려주었다.” 즉 그가 하루 종일 차를 빌려주었다면 망치 하나 빌려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아이들도 이런 아포르티오리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스미스씨가 차를 빌려주는 것은 망치를 빌려주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다. 더욱이 그 차가 매우 비싼 차라고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차를 빌려주는 것은 망치를 빌려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그런데 스미스씨가 기쁨으로 더 큰 일을 했다면 그보다 덜 힘든 일 역시 기쁨으로 쉽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포르티오리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바울의 유명한 아포르티오리 논리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에 대해 바울이 이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 이것은 가장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것보다 쉬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큰 소망을 주며 모든 것을 감싼다. 나는 이 구절을 평생토록 수도 없이 읽었다. 그런데 23살에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이 논리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소멸될 수 없는 논리이다. 이것은 그 날 내 영혼에 침투한 뒤 뿌리 깊게 이식되어 내 삶에서 항상 소망을 주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 내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구절의 두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

먼저 롬8:32의 앞부분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중 하나는 우리의 죄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롬3:23). 죄의 삭은 사망이다(롬6:23).

다른 방해물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정당하게 진노하시다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엡2:3에 따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 둘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사실이다. 그렇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바울은 롬8:32 전반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 장애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무한대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점이다.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과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 간의 긴장감을 보여 준다.

우리는 바로 이 긴장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를 위해 무한대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일이었다(요3:16).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넘겨줄 수 있을까?

바울은 주님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그분 같은 존재는 없다는 말이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무한대로 귀중한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두 번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미3:17; 17:5).

골1:13에서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포도원을 빌려 경작하는 농부들 비유를 직접 하셨다. 그 악한 농부들은 수확할 때가 되어 세를 받으러 간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러자 주인은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보내어 자기의 세를 받으려고 한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막12:6),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무한대 사랑의 대상이었다.

롬8:32의 요점: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무한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처럼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규모의 장애물 과연 하나님은 이 아들과의 무한대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고 그분을 넘겨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까? 만일 그리하시려 한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의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목적은 실패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 장애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해도 말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려 한다면 그것은 선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롬8:32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주셨다.

가룟 유다가 넘겨준 것 아닌가? 빌라도가 넘겨준 것 아닌가? 헤롯과 그 일당들 그리고 군중들... 혹은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롬8:32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 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보여 준다.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아들을 아니하시고 넘겨주셨다(행2:23)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지만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논리는 어렵지 않고 쉽다

그러므로 바울의 아포르티오리 논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는 이 논리를 수사학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 준다.

수사학적인 형태란 질문의 형태인데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바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질문: 그러면 바로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답은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의 의미: 이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는다.

네 구절 뒤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8:36).

여기의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것이다.

롬8:30, 예정부터 부르심, 칭의, 영화까지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다음이 가능하다. 28-31, 33, 35-39

나의 모든 소망은 롬8:32의 논리에 근거한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 내가 23살이었을 때 이 하늘의 논리는 내 속에 깊이 들어와 내 생각 체제를 다 바꾸어 놓았다. 이 변화는 소망이 넘치는 변화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늘의 논리 요약: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 이것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거하여 매일 살아간다. 이 모든 약속은 하늘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내 모든 소망은 그분의 약속들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은 롬8:32의 논리에 의해 보증된다. 바울의 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고후1:20).

그 이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약속들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힘입어 많은 싸움을 싸웠다.

두려움, 욕심, 정욕, 교만 분노 등

용기, 순수한 마음, 만족, 겸손, 화평, 사랑을 위해 싸웠다.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약속들에 힘입어 싸웠다.

이 모든 싸움의 뒤에는 하늘의 논리가 있다.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네게 주었다. 그러므로 네게 주는 내 약속들은 실패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가서 내가 너보고 하라는 것을 하라."

이 하늘의 논리는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위로를 준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여 준 사람에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마지막 정리

나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이 책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간 바울이라는 영혼, 그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의 진실한 삶을 여러분이 배우면서 그를 동경하고 그의 메시지를 확신하며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 책을

기록하였다.

나는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혹은 속아 넘어간 자가 아니다.

그 사람 자체와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나는 큰 위기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큰 위기는 내 삶의 의미와 내 혼의 종착지를 결정하는 위기이다. 바울은 심판의 날이 온 세상에 닥친다고 말한다. 롬2: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내가 내 삶과 내 마음의 비밀스러운 죄들에 대해 - 이런 죄들은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오염시킨 이기심의 동기를 가진 잘못된 것들이다 - 무한대로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로 두려운 일이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바울은 이런 두려움이 지혜로운 두려움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롬11:20,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처럼 내가 맞은 위기는 사실인데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그는 좋은 의사이며 내 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는 정직한 의사이다. 또한 그의 주인인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한다. 비록은 바울은 나를 본 적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이미 잘 파악하였다.

“한 마디로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바울은 내 눈을 바라보며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위한 구출과 생명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애를 써가면서 보여 주었다.

그는 나를 위해 다음을 기록하였다.

빌3:8-9,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 두려움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 소망의 빛이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것으로 여겨지는 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다시 빌3:8-9

이 말은 마지막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나는 너무 기뻐서 물구나무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루터는 이 말을 지켰다. 그가 거하던 위텐베르그 시는 그가 바울의 메시지로 온 세상을 뒤집어놓자 기뻐서 뛰었다.

바울은 세 번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롬9: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고후11:3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딤후2:7,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그는 정직하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대변인인 그의 말을 거부하면 심판 날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소망을 거부할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진실함을 독자들이 거부하고 그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롬9:2; 10:1; 빌3:18).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듣는다.

고후11:9,11,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 바울의 이런 사랑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화된 사람이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의 말을 그에게 적용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나를 사랑하였고 나와 그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보여 주고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었다,  
바울의 이런 헌신이 있어서 세상은 크게 변하였고 나도 변하였다.